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색타일과 경질유리로 특색있게 장식한 살림집의 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고 2호동 3층의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공동살림방, 부엌, 샤워실, 화장실, 복도 등이 일일이 돌아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미 비준해준 설계안대로 가구들을 구색이 맞게 놓았으며 바닥재도 질 좋은 것

으로 깔았다고, 벽지의 색깔과 무늬도 온화한감을 준다고 말씀하시었다.

새 집에서 살게 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무엇을 더 안겨주어야 하겠는가를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한대로 모든 살림집들에 액정 TV도 놓아주시겠다고 함께 여러가지 그릇들도 일식으로 더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학습과 교수준비를 하는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책상을 놓은 서재벽면에 당반식

책장도 설치해주며 생활에 편리하게 복도벽면에는 원형거울도 달아주라고 이르시었다.

살림집의 환풍환풍을 몸소 걸어오시며 건설정형에 대해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7층에 꾸러진 실내휴식터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산책과 독서, 오락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휴식터를 꾸리기 정말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배란다에 나가 시어 시내전경을 부감하시며 살림집 위치가 정말 좋다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섬으로써 통훈대거리가 더욱 환해졌다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훌륭한 살림집을 일떠세워 주신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이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유일한 출로는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연합성명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드넓은 열의속에 역사적인 10. 4선언발표 6돐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분별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와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확고한 통일의지와 민족대단결의 승고한 뜻이 뜨겁게 어려있고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맥박치는 10. 4선언은 6. 15북남공동선언과 함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실천강령이다.

6. 15북남공동선언과 더불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밝혀준 10. 4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교무적기초로 되었다.

우리 민족의 머리에 드리웠던 불신과 대결의 검은 구름을 밀어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 나가는 정의로운 투쟁의 앞길에는 언제나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새차게 나뭇가지였다.

비록 6. 15통일시대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희망의 표대인 북남공동선언이 있기에 우리 겨레는 좌절을 모르고 통일의 한길로 도도히 전진할 수 있었다.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길은 결코 탄란대로 가 아니며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민족을 등진 반역패당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집권첫날부터 북남수뇌상봉과 함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반민족적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반통일적이며 대결적인 그 무슨 《원칙론》에 매여달리면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과 온

겨레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북남합의의 마저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6. 15를 지지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나선 지로운 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을 《중북세력》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살벌한 파쇼독재의 암흑시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북남공동선언을 지켜나나 아니며 저주로운 동족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느냐를 판가름해야 하는 엄중한 사태가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의 지향이며 이른 바 《원칙론》은 북남관계발전과 전쟁을 불러오는 제약의 근원이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

민족연합 북측본부는 역사와 민족의 운명에 지닌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담긴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오늘의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을 드림없이 리행해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앞날이 있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이 있다.

지나온 6. 15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리행을 떠난 북남관계개선은 한갓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밀쳐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마련한 6. 15의 고귀한 결실들을 되살려내고 선언리행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확고히 전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북남사이에 불신과 적대를 고취하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체제대결,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다.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대화상대방을 모독하고 북남합의를 짓밟으며 체제대결에 피어있는 괴뢰보수패당의 흉악한 반공화국대결망정으로 북남관계는 어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괴뢰보수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매일과 같이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위험한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음으로써 오늘 조선반도는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민족의 운명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현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투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온 겨레가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만 우리의 성성한

존엄과 체제를 무엄하게 헐뜯으며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반역패당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합된 힘으로 괴뢰패당의 극악한 체제대결책동과 침략적인 전쟁도발기도를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3.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련대연합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힘을 합쳐나갈 때 조국통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삼천리강토위에 평화롭고 번영할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주제102(2013)년 10월 2일  
평 양

## 사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역사적인 10. 4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6돐이 되었다.

돌아켜보면 주제96(2007)년 10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진행되고 여기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 15의 위업을 이어나가며 그 정신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한 중대한 사변이었다.

10. 4선언에는 북과 남이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10. 4선언이야말로 6. 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 실린 강령이다.

10. 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는 실천강령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더욱 큰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갈 수 있게 되었다.

10. 4선언의 채택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시어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운동

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제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 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었다.

어머이장군님께서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 대통령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승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지난 6년 간은 우리 겨레에게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정당성과 함께 그 리행의 절박성을 더욱 깊이 새겨준 날이었다.

선인들이 계속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0. 4선언체택이후 남조선에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보수패당이 집권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북남사이에 진행되던 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와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에 차란봉이 내리워지고 선인들의 리행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다. 리명박수 《정권》은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여놓으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반통일보수패당이 《천안》 호사건, 연평도사건과 같은 특대형도 발행취미를 띠어 감행함으로써 북남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사태까지 조성되었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며동안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밀쳐나서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명박적조와 근본원칙, 실천방도를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며 조국통일의 강령적기초이다.

지나온 현실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부정은 곧 대결과 전쟁이며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히 리행에 의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여 평화번영의 리명박적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반대하는 반통일보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선언리행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애국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나라의 번영을 증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은 선인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이 북남관계에 들쳐온 파국적인 후과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나설 대신 구태의연한 대

결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대화있는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여 모처럼 마련되게 된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들고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제2차 북남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통해 역사적인 10. 4선언을 전면거부하는것과 같은 천하망두것을 감행한것은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는 반통일대결망두의 절정이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속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의 기치아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 건설이 일떠섬을 앞당기자.

환경공학연구소에서 제출한 3차원지하정보체계 등도 높이 평가되었다.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대한 시상도 있었다.

발표회는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의 하나인 석탄공업부문의 과학기술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워 생산을 늘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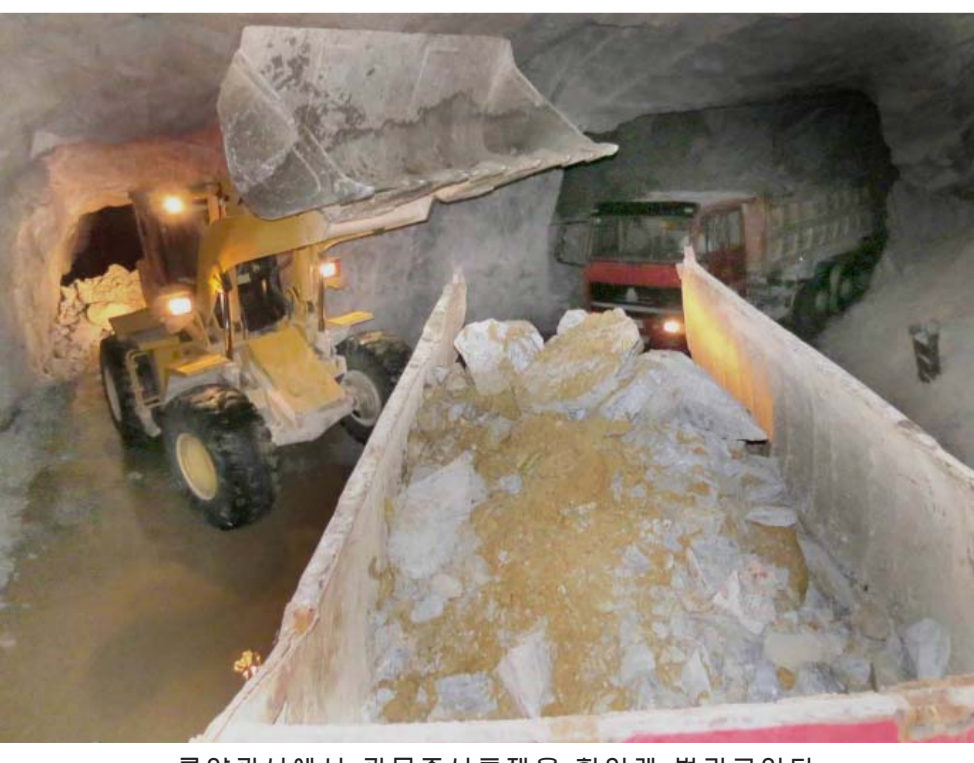
### 전국석탄공업부문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석탄공업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 9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석탄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경제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150여건의 연구논문들이 제출되었다.

탄차바퀴의 구조개선(국



평양광산에서 광물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 다 시 보 는 1 0 월 의 사 변

너무도 달라진 현실이었다. 민간, 당국할것없이 각계층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회합을 가졌고 다방면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금강산관광과 체육 및 문화교류의 길도 열렸다. 이에 대해 남조선과 세계의 언론들은 《2000년의 멋진 사변》, 《세계를 진감시킨 특대사변》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6.15자주통일시대의 격동적인 달과 해가 흘러가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할것을 결심하셨다. 다시금 수뇌상봉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의 숭고한 통일 의지와 대응단에 의해 2007년 10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10.4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

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평양상봉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되도록 할데 대해서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라는것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적대판계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대해서도 강조하셨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도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공

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므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하여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갈 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판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포괄적으로 밝혀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게 됐던것이다.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의 채택은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를 다시금 격동케 한 민족사적사변이었다. 10월의 사변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단체 인사들은 《10.4선언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남



역사적인 10.4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했으며 김대중 이전 《대통령

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미국 CNN TV방송, 프랑스 AFP통신, 일본 지지통신, 중국 신화통신, 로씨야 이파르-파스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평양수뇌상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주도

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어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에서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었다.》고 전했고

은 《클라스노즈제》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어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에서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었다.》고 전했고

남조선 출판물 《사람일보》는 《우리 민족이 미래에 갈 수 있는 길은 6.15, 10.4선언 완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대장정은 기어이 승리할것이다.》고 했다. 재우즈베끼스탄 주영일동포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나아가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약속돼 있다고 피력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뜻과 유훈대로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안팎의 민족분열세력의 반동일, 반평화책동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지고 진정한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업무를 반드시 이루자는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겨레의 변함없는 지향이며 열망이다. 부언하건대 10월의 사변이 있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은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지게 됐고 이 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실

### 조국통일에 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중에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 인민사랑의 정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로비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로동당의 근 70성상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복리증진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인민사랑의 력사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이 천을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로 삼도록 하시고 인

민들의 진정한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었다.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이라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깃들여있다.

일찌기 《인민을위하여 북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88만 3940여리에 달하는 현지도의 길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 애국자의 인민사랑의 로정이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정책에 담으신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지

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비롯한 인민적정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리성이 뚜렷이 확증되었던것이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펴고 있는 로동당의 령도에 의해 몇해이간에만도 각지에 수백여개의 문화휴양지, 명승지를 비롯하여 245세대를 비롯하여 전국에 수십만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피 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대개도간석지, 현대적인 파수, 양어, 축산기지 등 수백여개의 중요대상들이 일떠서 로동당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공화국이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생산의 확고한 토대를 축성하고 CNC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여 온 나라에 CNC기계바다를 펼쳐놓을수 있는것으로, 회천의 대규모로터엔터제가 불과 700여일동안에 일떠서게 된 것도 인민을 하느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것을 사랑들은 오늘 더욱 가슴후덥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모시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복리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애국위업을 힘차게 향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

다고 하시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에게 위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짙게 담겨져있고 당의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닦아내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당의 품이라는 은정어린 가르침도 주시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든, 무엇이든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런분 이시다. 그의 인민사랑의 지도와 보살핌속에 통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연, 류경원, 인민의 야외빙상장, 해화화관, 창진거리, 은화과학자거리가 번듯하게 일떠서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가 능력확장되었으며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송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과 류경구강변원을 비롯한 건설물들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서고있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문명국,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강성변영하는 통일국가를 세우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지향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던 조국통일, 우리 민족의 최대수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기어이 끝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 결심, 그 의지를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

입니다!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통일 의지와 결심의 밑바탕에는 그이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리념이 놓여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4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 경

은 세상에 천명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바로 조국사랑, 민족사랑의 뜨거운 진정이 차넘치고있다.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3월 민족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으시고 통일의지를 굳히시였으며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 세상에서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우애에 신이 없고 민족



은화과학자거리의 일부

본사기자 리 실

본사기자 김 강 철

본사기자



#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 평화번영의 이정표

역사적인 10.4선언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기치이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10.4선언의 채택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선언에는 남북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힌 자주통일선언이다.

민족의 운명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더우기 나라의 분열이 민족대무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산성된 조건에서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통일문제를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은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10.4선언은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선언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감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갈때 대해 밝힌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민족의 자주권을 도모할수 없다. 남북관계를 깨우쳐주고 있다. 나라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앞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켜야 실현될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의 교훈과 조국통일운동의 현실적요구로 부터 새 세계 민족자주통일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를 제시하였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민족끼리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을 밝힘으로써 6.15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되고 있다.

10.4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위대

한 이정표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 의해 이룩된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들에 토대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왔다.

선언에 의해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문제, 군사적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문제, 력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문제,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데 제기되는 제반 과제들의 해결방도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들은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한편 외세를 등에 업고 대결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발전에 제동을 걸고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얼마전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라는것을 통해 10.4선언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리해하지 않겠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북공동선언들의 성과적리행이자 곧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 리행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자각과 의지를 안고 남북공동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라 광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전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

###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요구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넷출판물 《자주민보》는 《남북관계복원이 북미대화 와 갖는 관련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다.

북관계복원의 최고정점은 10.4선언기념일에 대한 남북협력일기》이라고 하면서 《10월에는 10.4선언이 있다.》,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이정표로서 의의를 갖고있다는데 기초해오면 6.15공동선언의 실천방도로 자리매김될수 있는것이 10.4선언이 갖는 의미이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출범 6개월은 공약과기, 민주주의 불복, (유신) 회귀의 전과정이였다.》고 언급하면서 《이전 (정권)이 금강산관광을 전면중단시키고 (5.24조치)를 내렸던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앞으로 7.4남북공동성명, 6.15, 10.4선언에 의거해서 가겠다는 최소한의 입장표명이 나오는데는 본격적인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9월 29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사진전시회가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조선로무현대통령과 상봉하시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함 령도 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선군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참가자들은 북남공동자 5.1절통일대회를 수축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로씨야고려연)가 9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10.4선언이 채택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좋게 나가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당국에 의해 또다시 꺾임을 겪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년초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압살소동으로 극도로 긴장되었던 조선반도정세와 남북관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이고 아량있는 평화에호적조치에 의하여 완화된기 시작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북남사이에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당국대화가 이루어지고 적십자회담도 개최되었다.

이 과정은 누가 진실로 평화와 협력, 통일을 바라며 누가 구태의연하게 대화의 막뒤에서 대결을 추구하고 정치적목적을 노리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북남관계는 철저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발전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다면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요구하는 북조선인민들

###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국통일방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량방제방식은 조국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랜 기간 존재하고있고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 한다면 통일은커녕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리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점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사상과 주의

주장이 서로 다른 각이한 정당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량방정부를 구성하고있으며 지역적리방이나 통합정책을 추진하고있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한강도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예족, 예족, 예민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북과 남의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할수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량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었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때 대해서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량방제안과 남측의 량방제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이 량방제통일방도로 지향해나갈수 있는 민족공동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력사적인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우리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서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남북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가 보장, 량방제통일실현의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이 지나는 력사의 교훈이다.

현시기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량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것을 부정하는 차단을 하는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하고있다.

이것은 최근에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심상치 않은 사태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자주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이요 뉘오 하면서 공화국의 제도를 허물어버리는 야망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놓았으며 이번엔 확정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또다시 이것을 로골화하였다.

그리고 《원칙고수》를 운운하면서 저들의 대결정책을 고집해나서는가 하면

말마전 남조선통일부는 장관 류길재의 사회하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확정하였다. 로무현 《정권》시 기인 2007년 11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1차계획》에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창설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통째로 빠져버렸다. 이것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환시적전이고 비렬한 파괴행위이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합의서 명하고 온 겨레가 지지 찬동한 10.4선언을 부정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고 두고두고 규탄받을 만고죄악이 아닐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론들도 《(정부)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로무현 《정부》의 중전적 《대북정책》이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평화체제전환추진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 망선고를 내렸다. 이 정책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합의의 중요내용이어서 이번 《2차계획》 확정은 《정부》가 10.4합의의 폐기를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10.4선언으로 말한다면 지금으로부터 6년전 평양에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함께 서명한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다. 선언에는 6.15공동선언에 의해 이룩된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들에 토대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 10월은 무엇을 말하는가

김태룡

여섯돌기의 년flows 새기며 이 땅에 찾아온 10월 4일 환희와 격정으로 맞이해야 할 10월이 사남게 불어치고있다 불신과 대결의 칼바람이

통일과 평화번영의 앞날을 민족의 앞길에 펼쳐준 10.4선언 그 뜻을 거역하는 보수세력 모처럼 열려진 북남협력의 길마저 동족대결로 가로막고나섰으니

겨레의 가슴을 치며 10월은 무엇을 말하는가 화해와 개선을 바라는 열망 그 열망 잃어버리는 겨레의 심장속에 10월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된 조국을 원치 않고 동족대결에 파는이 되어 날뛰는 범죄적인 반통일소동을 그대로 놔두다면 민족이 바라는 평화번영의 10월은 언제 가도 이 땅에 울수 없다는것

아량과 선의를 우롱하며

《원칙론》의 나팔을 불어대는 속에 칼을 품은자들 그 죄악의 행동이 계속되는 한 화해와 단합의 꽃은 언제 가도 피울수 없다는것

대결과 불신의 광풍 불어칠수록 더더욱 소중하고 잃을수 없는 6.15의 실천강령 10.4선언 그 진리를 그 념원을 떠나 통일도 평화도 없음을 10월은 준결히 깨우치노니

겨레여, 일떠세우자 소중하기에 잃을수 없고 잃을수 없기에 지켜야 하는 10.4선언 그 뜻을 지켜 그 정신을 빛내여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자

민족의 번영 민족의 장래가 다 비껴여있는 10.4선언 그 뜻으로 평화의 푸른 하늘 펼치고 통일의 새 아침 열어가라고 오, 10월은 말한다 10월은 웨친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대통령선거》기간에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대해 《공약》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 대결속임을 감추기 위한 침발린 소리이고 민심을 속이는 파렴치한 기만행위였다는것이 이번엔 날같이 드러나게 되었다.

북남공동선언을 떠나서 남북관계개선과 발전도, 민족의 밝은 래일도 기대할수 없다. 따라서 10.4선언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것과 같은 함락

방도는 남북관계를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반통일행위이며 겨레앞에 섰을수 없는 범죄이다.

북남쌍방이, 그것도 최고 수뇌분들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망탕함을 감행하면서도 그 무슨 《신뢰》니, 《합의 준수》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첩멸의 극치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이번의 망탕이 초래할 북남관계에서의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최후발악을 하지만 10.4선언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히 살아있으며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끝까지 리행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고영수

### 10.4선언부정은 응징 못할 반통일대결망동

구체적인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다.

10.4선언에 의해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문제, 군사적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데 제기되는 제반 과제들의 해결방도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하기에 온 겨레와 세계는 이를 적극 지지찬동하였으며 삼천리강도에는 바야흐로 다가오게 될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환희가 넘쳐흐르고

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은 곧 남북관계발전행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를리 없는 현 남조선보수당국이 공동선언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망동까지 서슴지 않고있는것이다. 동족대결적인 《원칙고수》로 모처럼 마련되어가던 대화국면에 차단을 불러오는 보수세력이 그 연장선상에서 10.4선언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폐기하는것과 같은 망동들을 또다시 감행한것은 엄중한 대화부정, 통일부정행위이며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다.



#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고준엄모독행위

알려지지처럼 극도의 동족적대감과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힌 남조선보수패당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통이 큰 야망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에서의 성과를 터무니없이 저들의 《원칙론의 성과》로 광고하는가 하면 모략적인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 최고준엄은 공화국의 생명

경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 일심단결의 굳건한 위력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에서 최고준엄은 곧 절세위인들의 높이신 권위이다.

민족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신 고결한 헌신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흡모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며 인민은 절세위인들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따르고있다.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준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생명으로, 목숨바쳐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올해 봄 일본의 서부해안에서

보수매체들을 부추겨 그 무슨 《처형》이니, 《은폐》니 하며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걸고드는 모략보도를 붙여냈는가 하면 진주민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날조보도까지 내보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사이비전문가들의 허튼 소리를 《인용보도》 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북붕괴설》도 집요하게 내뿜고있다.

공화국의 최고준엄에 대한 보수매체의 모독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우려는 어리석은것이며 절대로 용서 못할 특대형죄악이다.

는 조난당한 공화국선원들의 시선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형체도 알아볼수 없는 그들의 품에는 물기 한점 스며들지 않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가 꼭 안겨져있었다.

그때 많은 일본사람들이 경도자의 권위를 목숨으로 옹위 한 그들의 고결한 소행에 충격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뜻밖에 일어난 산불로 위협에 처한 구호나무들을 구원해내고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상을 가슴에 품고 숲진 무제봉의 19명형 운전사들, 큰물이 모든것을 휩쓸어버리는 위급한 순간에 목숨을 바쳐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신 나이던 녀학생, 자기 경도자를 절대적위하여 서슴없이 기수를 돌려 장렬하게 생을 마친 길영조비행사...

참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는 볼수 없는 이런 결사옹위의 기풍은 자기를 보살펴주고 이끌 어주고 안아키워준 위대한 수령, 인민의 영도자와 생사를 같이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만이 발 휘할수 있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발현이다.

결국 최고준엄을 헐뜯고 훼손

## 북남관계에 미치는 파국적후과

공화국의 최고준엄에 대해서는 과거 동족대결에 광분한 력대 보수 《정권》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건드리는 망동이 빈번히 벌어져 북남관계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곤 하였다.

리명박이 집권한 기간 남조선의 룩, 해, 공군부대에서 《인공표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남조선군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최고준엄을 헐뜯는 《구조, 현수막》들이 나뭇가지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최고준엄표적사격》 행위들이 감행된것이었다. 리명박패당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동족에게 칼부림을 해대는 반인륜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애도어떠중이들로 《동가보》 라는 예로단체까지 무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해치려는 특대형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하여 6.15북남공동선언과 함께 종래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참혹하게 결판나고 대결과 불신이 격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하러는것자체가 곧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 인민에 대한 부정이고 동족을 멸살시키겠다는것이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최고준엄모독행위를 공화국에 대한 가장 엄청난 도발로, 특대형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절대로 용서치 않는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오늘까지 리명박역도를 그토록 중요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존엄한 선고를 내린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리명박패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리명박패당이 감행되던것이니 그토록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의 최고준엄모독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봄 남조선보수패당은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드는 반공화국유엔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자 《북붕괴》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반북대결소동에 날뛰었다. 지난 3월 《국무총리》 정홍원과 함께 연평도에 나타난 해병대 부사령관 리상화라는 자는 무덤하게도 《다시는 못오게 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으며 정홍원도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만단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할 경우 10배의 타격을 가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극우보수언론들도 2010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미군의 제자작전과정을 공개하면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에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해치기 위

한것이 들어있다고 빼것이 광고했다. 지어 이 작전은 군사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북의 모든 행동을 정밀감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수세적인 《대북정책》》이 아니라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 때라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다. 그리고 함성침몰사건을 북과 억지로 련계시키고 연평도도격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같은 성격의 《국지도발》이 재발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각지에 도사려있는 최고준엄상징들을 해칠 《제우선순위목록》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자랑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이 무분별한 대결광기는 즉시에 공화국의 격분을 자아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준엄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 최고준엄모독행위에 깔린 흉심

사실 남조선보수패당도 최고준엄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대화의 막뒤에서 북남대결의 역사를 지속시켜보려는 검은 속심도 깔려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할수 없이 대화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을 굴복시켜 《체제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그들의 본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파시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어버리런합》과 같은 늑대리반공맹세부리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는 놀음을 벌려놓게 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인쇄성있는 노력에 의해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이 진행되고있던 7월에도 《문화일보》와 같은 극우보수언론들을 부추겨 전술 60문 경총행사준비와 마시령스키장건설 등을 《주민들의 원성》이니, 《불만》이니 하며 최고준엄과 련관시켜 외풍증상하였다.

이처럼 남조선보수패당의 최고준엄모독행위는 비단 오월에 와서 처음으로 파국적인것이 아니라 북남관계에 심각한 불이간근분화근으로 되고있다.

를수 없었던 《북붕괴》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대화의 막뒤에서 북남대결의 역사를 지속시켜보려는 검은 속심도 깔려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할수 없이 대화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을 굴복시켜 《체제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그들의 본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리 만무한것이다.

결국 남조선보수당국은 또다시 최고준엄을 걸고드는 모략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화해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오늘 보수패당의 최고준엄모독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지난 시기보다 교활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지금 최고준엄모독행위는 극우보수언론들이 앞장서있다. 보수언론들은 신분을 확인할수 없는 당국자나 《소식통》, 지어 외신보도를 전제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걸고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인론의 자유》니 뉘니 하며 아닌보살을 피우고있지만 그 배후에 다른 아닌 그들이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최고준엄모독행위는 근 70년간 지속되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최절정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전면도전, 선전포고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단호하고 명백하다. 실사 그 누구이든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함부로 건드리는자들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립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현 남조선당국자들과 군부호전세력, 보수언론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것이다.

박철남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최근 미국방장관과 미합동참모본부 장군이 남조선을 행차한 남조선군부호전세력과 그 무슨 제45차 남조선미국 《안보협의 회》와 제38차 남조선미국 《군사위원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맞춤형억제 전략》이니 뉘니 하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의관을 벌려놓았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다음주부터 미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동해에서 북침전쟁을 노린 연합해상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한편 조선남해에 도미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참가일에 일본무력까지 동원된 해상 훈련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의관을 벌려놓는데 이어 강행하려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의 대화, 평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끌끌대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협천만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핵무기까지 동원하여 조선반도에 긴장격화를 몰아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핵항공모함 《니미즈》호와 핵잠수함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에 전쟁위협을 몰아온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최근에는 대화의 막뒤에서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운동을 벌려놓고 핵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여 북침핵전쟁광기를 부린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연습소동에 공화국은 그것이 초래할 파국적인 사태에 대하여 이미 경고하였다.

## 무모한 차레질것은 무모한 핵전쟁연습

지난 1일 남조선당국자는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데서 그 누구의 《핵과 미사일》이 더이상 쓸모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것》이라느니, 《핵무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겠다.》느니,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것》이라느니 하는파위의 망상소리를 해했다.

남조선당국자는 전 날에도 미국과의 동맹 60년 《기념사》라는데서 공화국의 국가건설로 감행하였다.

은갖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공화국을 비난하다 못해 이제는 당국자까지 나서서 함부로 망발질을 해대는것은 동족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며 공화국의 진정성있는 대화,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공화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으며 이번에는 또다시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를 조장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핵전쟁불장난은 공화국의 주동적인 대화,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엄청난 도발로서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하려는 범죄적정세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이번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두고 《년례적》이니 뉘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전쟁을 가리우곤 내외여론을 우롱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일 따름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대화와 평화를 바라고 누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가스통끼리 그지없는 행동이다.

평화를 바라는 공화국은 이미 천절적처럼 자기에게 핵위협을 가해오는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강경히 대처해나갈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대화와 평화나, 대결과 전쟁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태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이 북남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공화국의 야망과 성의를 무시하고 위협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끌끌대 강행하는 경우 그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엄청난 후과를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김응철

을 핵으로 엄중히 위협함으로써 산생된 문제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950년 11월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조선전쟁에서 《늘 원자탄사용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떠들었으며 1951년 9월과 10월에는 미공군의 《B-29》 폭격기들이 평양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한 연습까지 감행하였다.

정전후 남조선은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들이 가득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화하였으며 공화국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 공화국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미국은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백지화해버렸으며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공격을 정책화하였다.

올해만 해도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B-52H》 핵전략폭격기들을 끌어들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공격연습을 강행하던 나머지 지난 2일 벌려놓은 제45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억제전략》의 미명하에 핵전쟁계획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다음주 조선동해에서는 미핵항공모함의 참가하여 미국과 남조선군의 연합해상훈련을 벌리려 하고있다.

현실은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핵위협은 어디서 오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가 상진의 핵은 아닌보살하고 민족을 지켜주는 정의의 핵억제력에 대해 이러쿵저리쿵 하는것은 미국의 영부세로서의 가련한 정제만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남조선당국자가 그 무슨 《변화》를 운운하는것도 해피하기 그지없는 망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 침략의 무리들을 용서치 않겠다

—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분노의 목소리 —

감히 어디다 대고 선제타격이나

요즘 방송을 들으면 미국과 괴뢰패당이 《대규모무력시위》를 한다. 《맞춤형억제전략을 완성》했다 하며 너털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서 《맞춤형억제 전략》이라는것은 《사건 예방》의 미명하에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겠다는것이다.

침략자들이 어벌이 커도 너무 크다. 어디다 대고 감히 핵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날뛰는가.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는 물론이고 로동적위군도 한사람같이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타놓고 말해서 그따위 침략무리들은 우리 로동적위군만으로도 넉넉하다.

명령만 내리면 낮으로 버대를 베어넘기듯, 압연기로 강관을 밀어내듯이 단숨에 짓밟아버릴것이다.

우리의 대화와 평화노력에 도전하여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어디 해볼래면 해보자는것이다.

우리의 불소나기는 자비가 없으며 그 불속에서 미군은 물론 그 바지가행이를 붙잡고 대결소동, 전쟁소동에 날뛰는 김관진과 같은 대결미치광이들도 타죽게 될것이다.

로동적위군 지휘관 정경문

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를 건드릴수 없으며 내 나라의 풀 한포기, 꽃 한송이도 다치지 못할것이다.

평양화초연구소 인옥숙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한쪽에서는 북을 타격하겠다고 전쟁무기들을 파시하고 다른쪽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우리를 어쩌보려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어리석은 전쟁광기가 아닐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전민이 무장한 나라이고 전체 인민이 병사다. 내가 속한 로동적

에 평가가 깃들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참음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수십여년간 다지고다져온 자위적국방력이 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다.

지금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한손에는 펜을, 다른 한손에는 총대검과 새 전쟁도발행동을 당장 걸어치울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영근

나를 이 나라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남조선괴뢰패당이 동족대결과 새 전쟁도발행동을 당장 걸어치울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이런 자들이 있는 한 언제라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도 없고 이 땅

위군의 힘만으로도 능히 침략의 무리들을 격퇴하고 적진에 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을수 있다.

침략자들이 만일 도발한

다면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정의의 보복성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매죽음을 안길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

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적의 기개와 의지는 총천하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어리석은 북침전쟁광기에 불이 달리는 그날이 곧 자멸의 날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평양시 락랑구역 충성3동 김대건

## 청년대학생들의 이름으로

##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초불집회

남조선의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원정지공작 대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가 9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졌다.

각계각층 군중 5 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 발언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규는 대학교학생들속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5%가 특검을 실시해라라고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하였고 82.5%가 현 집권자가 정보원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선거》개입사건에 관련된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대학생들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그는 명명하였다.

청년련대 대표 윤희숙은 현 집권자가 《유신》의 망령을 불러 독재통치를 부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보원해체》,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정보원선거개입 박근혜가 책임지라.》고 웨었다.

본사기자



## 가 소 로 운 사 트 대 질



현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대북 정책》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는 이른바 《신뢰프로세스》, 《신뢰》라는 조진말에 《프로세스》라는 외래어를 억지로 조합하여 듣기도 부르기도 영 어색한 이 낱말을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중 남북의 우뚝 하고있다. 남조선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서, 《대북전문가》로 자처하는 《학자》들이 열변을 토하는 강연회와 토론회들에서, 저어는 미국의 회를 비롯한 외국에서까지 《신뢰프로세스》라는 이색적인 단어를 남조선당국자들의 현란한 말재주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열쇠나 되듯이 묘사되고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누구를 《견인》 하고있다는니 뭐니 하면서 최근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일련의 성과들까지 《신뢰프로세스의 결과》 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저들의 《대북정책》을 미화분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렇다면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신뢰프로세스》가 과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 《신뢰프로세스》의 가면을 벗겨본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신뢰프로세스》는 빛좋은 개살구, 그럴듯한 가면을 뒤집어쓴 또 다른 대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이 류달리 《원칙》과 《신뢰》를 자기의 《전매특허》인양 광고하는 현 남조선당국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상이다 아는 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어느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처음으로 력설하면서 그것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인도적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지속하며 《신뢰》가 마련되는데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 한 미사여구들이다. 그러나 《신뢰프로세스》의 실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은 올해 5월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학자사에 그가 한 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가 《신뢰프로세스》란 《북핵을 용납할수 없고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공언하는것을 들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뢰프로세스》는 한쪽쪽을 이은 동족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거부감으로 가득찬 대결정책이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을 이루어나가자면 북남대결상태를 결정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사상과 제도, 정권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라고 립장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신뢰프로세스》의 간판밑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결과 전쟁 위험만을 더욱 조장해왔다.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올지 프리덤 가드인》과 같은 합동군사연습으로 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면서 미국의 첨단핵력격수단을 끌어들이어 공화국을 핵무

기로 위협한것이 바로 《신뢰》를 입버릇처럼 떠들어온 남조선 당국이었다. 남조선당국은 그것도 모자라 《6.15의 옥동자》이고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북남대결마당으로, 북침전쟁의 발원지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함으로써 공업지구를 잠정폐쇄의 위기에까지 몰아넣었다. 그리고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지난해 7월 프랑크푸르트의 서면 회견에서 《사태의 책임은 북에 있다》, 《남북한은 고리를 끊을 생각》이라니 뭐니 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는것이 바로 《신뢰프로세스》의 과정이고 목적이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른바 《신뢰프로세스》란 또 한 북과 남 사이에 지켜야 할 초보적인 상식도 레도 지키지 않은 무례의 극치이며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량북통일기운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대결과 파괴의 도구이기도 하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뀐 후 7개월 남짓한 기간에는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일지거 있어본

적이 없었던 아연실색할 사건들이 일어났다. 단적인 실례로 지난 6월 공화국의 성의와 아랑에 의해 마련되었던 북남당국회담이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그 무슨 《격》과 《금》문제에 의해 시작도 못해 보고 무산된 비극을 놓고보자. 남측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격을 맞추는것이 신뢰의 첫걸음이 될것》이라니 하면서 실무접촉때부터 북측 단장으로 누가 나와야 한다는 식의 내정간섭적발발을 마구 하였다. 공화국이 지난 기간의 공정한 전례를 깨고 남측의 체면도 보주는 아랑까지 보여주었지만 끝끝내 남조선당국은 회담이 개최되 기 직전에는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어 내놓는 무도한 행위로 회담을 무산시키고야말았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부르짖어온 《신뢰》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행동이 아닐수 없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은 지나온 북남관계사는 물론 세계외교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북남사내북들의 대화록공개라

는 천하망동짓도 서슴없이 감행함으로써 저들이야말로 자그마한 믿음도, 신뢰도 찾아볼수 없는 매물매대의 무리라는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개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휘몰아쳐오던 《중부세력척결》광풍이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라는 모략사동으로 절정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통일애국세력, 민주진보인사들이 《용공》, 《중부》으로 몰려 탄압당하는 《마녀사냥극》이 벌어지는 현실은 《신뢰프로세스》가 다름아닌 《불신프로세스》, 《대결프로세스》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이번엔 북남사이의 당면한 일정으로 되었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연기되고 북남관계가 또다시 악화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대화상대방을 모략중상하고 종국적으로 《압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

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라는 거짓말도 모자라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하는가 하면 지어 공화국이 국제경기대회를 관례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것까지 거들면서 《변화》니 뭐니 하는 해피한 나발을 불어냈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극단적인 대결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속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 게 된것은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공화국의 일관한 노력의 결과이러는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개표리 삼년 가도 황모가 될수 없고 자루속의 송곳은 갈수록 없듯이 불신과 동족대결로 일관된 《신뢰프로세스》가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으로 있는 한 북남사이의 진정한 신뢰도, 관계개선이 있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중심으로 가득찬 《신뢰프로세스》라명을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동족대결정책을 폐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철민

현 남조선집권자는 북남관계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운운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곤 한다. 바로 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 때문에 이번엔 마치 그렇게 되었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금강산관광개선을 위한 회담이 연기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집권초기 《대북정책》을 작성할 때 《안보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의 확충》이니, 《대북억지력강화》니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우세확립과 외세와 공조한 반공화국군사적압살을 첫자리에 놓았다. 또한 《대북정책》의 궁극적목적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이라고 하면서 《체제통일》의 야망을 빼앗아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대결적인 《대북 정책》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으며 그것이 이번의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되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극단적인 대결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공히 연기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었다. 이번엔 벌어진 사태와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온 남남땅에 반공화국대결광기가란 무하던 《유신》파소독제시기를 방불케 하고있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유신》독재

자 《승공통일》과 《선진실, 후통일》론을 제창하면서 《지금은 어떤 형태의 남북교류도 있을수 없다》는 반통일말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1970년대 전반 공화국의 폭풍은 협상방침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 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마침내 1972년 7월 고 령철한 리성을 되찾아야 한다》, 《니 하면서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로골적으로 북남대결을 고취했다. 남조선도처에서 그 무슨 《반공대회》, 《반공강연》, 《반공전시회》라는것을 열고 《반공》집회에서 배를 가르는데 자르는 30만원, 손가락을 자르는 자에게는 15만원, 형사를

는 한편 《통일보다 분렬이 낫다》, 《니 뭐니 하는 악랄한 분렬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 하였다. 남조선의 《유신》독재 《정권》은 북남사이에 진행되던 모든 대화를 과탄시키고 나중에는 조선반도의 허리에 대결과 분렬의 콩크리트장벽을 높이 쌓는 망동까지 부러였다. 《유신》독재시기의 악명 높은 대결정책을 북과 남에 건 오늘 또다시 북남관계에 적용하여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통일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운운하면서 《유신》시절의 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맞을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수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전철호

수기 《인생길에 돌아오》는 진단을 받고 손쉬운 일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복지》를 떠돌며 우리를 유혹하던 남조선사회가 나를 제대로 살아나갈수 없는 완전한 페인인도, 불우자로 만들어버린것이다. 이 진단을 받은 시각부터 나는 초보적인 인정은 고사하고 논뚝만 한 동정도 없이 《탈복자》들을 위협하는 매마르고 황량한 남조선사회에 대한 분노와 아ลัย보이지 않는 매일에 대한 절망감으로 하루에도 몇번이나 죽을생각을 하였다. 물리와 인정의 불모지인 남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은 나의 지난날이 혐오스럽게 짝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고타운 어머니조국을 배신한 내 운명의 비참한 결과였다.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모래기던 나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다정했던 동무들이 못견디게 그리워했다. 짐승도 죽을 때에는 제 동지로 돌아간다는데 벌을 받어도 매를 맞고도 내 고향, 내 조국으로 가자. 아버지와 정든 동무들이 기다리는 조국에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굽이굽이 갈마들었다. 더우기 나를 조국의 품으로 다시 떠민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도소식과 날로 변천하는 조국의 현실이었다. 창건거리에 현대적인 고층, 초고층상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게 해주시고 이궁같은 집들을 로동자를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쓰고 살도록 해주셨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세심한 사랑을 추켜주시는 김정은원수님. 수수한 로동자의 품에 들리여 아이들을 집에 안으시고 알뜰도 축복해주고 그 수도물이 잘 나오는가 등 가정생활의 구성구석을 친어머니처럼 세심히 돌봐주시는 송고하고 인정은 그 모습은 인정에 목말라 몸부림치던 나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참으로 인민을 우선시하는 령도자의 이민위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꿈같은 일이라는것이 나의 주변에 살던 남조선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끊임없는 현지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학교, 일터와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온갖 은정을 다 배풀어주시고 어린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며 사랑의 기쁨사건도 짝이없고 밝은 매일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밝고 존귀하신 영상에서 나는 제 품이 바로 내가 살

던 조국이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우고 지켜주는 고타운 조국을 동지고 죽음의 시궁창속에서 헤매는 자신이 더욱더 저주스러웠다. 가자. 죽더라도 거이 거리를 조국땅에 가서 묻히자.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는 내 살던 공화국, 어머니당의 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이상 외롭지 않았고 힘이 솟구쳤다. 그후 나는 정보원요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지난 5월 꿈결에도 그림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다. 병든 자식 더 아껴주는 친어머니심정으로 공화국은 죄를 지는 나를 잊지 않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현대적인 병원에서 육체를 좀먹던 질병도 치료해주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도록 세심하게 마련해주었다. 참으로 백년 죽었다 살아도 다 갖지 못할 넓은 인덕과 도량으로 나와 같은 시대의 락오자들도 품어살펴주는 공화국은 진정한 어머니조국이다. 나는 지금도 남조선에서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이듯 《탈복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싶다. 진정한 삶의 요람은 공화국이라고. 황금정 (굴)

## 《유신》파기 대결정책의 부활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중부》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이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이번엔 벌어진 사태와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온 남남땅에 반공화국대결광기가란 무하던 《유신》파소독제시기를 방불케 하고있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유신》독재

4일에는 력사적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핵으로 하는 북남 공동성명이 채택 발표되게 되었다. 하여 온 거레가 통일의 환희로 설레이고 삼천리강토에 통일기운이 더욱더 높아가게 되자 《유신》독재세력은 《이제부터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대결로부터 대화있는 대결로 돌아섰다》, 《니, 《모든 국민이 지나친 론이나 흥분을 가라앉히

쓰는 자에게는 3만원의 《격려비》까지 주는 놀음을 벌려놓은 사실만으로도 《유신》독재자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지어 파쇼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인민혁명당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모략사건들을 날조하여 통일을 꾀치는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적열혈애국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

고 령철한 리성을 되찾아야 한다》, 《니 하면서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로골적으로 북남대결을 고취했다. 남조선도처에서 그 무슨 《반공대회》, 《반공강연》, 《반공전시회》라는것을 열고 《반공》집회에서 배를 가르는데 자르는 30만원, 손가락을 자르는 자에게는 15만원, 형사를

수기 《인생길에 돌아오》는 진단을 받고 손쉬운 일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복지》를 떠돌며 우리를 유혹하던 남조선사회가 나를 제대로 살아나갈수 없는 완전한 페인인도, 불우자로 만들어버린것이다. 이 진단을 받은 시각부터 나는 초보적인 인정은 고사하고 논뚝만 한 동정도 없이 《탈복자》들을 위협하는 매마르고 황량한 남조선사회에 대한 분노와 아ลัย보이지 않는 매일에 대한 절망감으로 하루에도 몇번이나 죽을생각을 하였다. 물리와 인정의 불모지인 남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은 나의 지난날이 혐오스럽게 짝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고타운 어머니조국을 배신한 내 운명의 비참한 결과였다.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모래기던 나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다정했던 동무들이 못견디게 그리워했다. 짐승도 죽을 때에는 제 동지로 돌아간다는데 벌을 받어도 매를 맞고도 내 고향, 내 조국으로 가자. 아버지와 정든 동무들이 기다리는 조국에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굽이굽이 갈마들었다. 더우기 나를 조국의 품으로 다시 떠민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도소식과 날로 변천하는 조국의 현실이었다. 창건거리에 현대적인 고층, 초고층상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게 해주시고 이궁같은 집들을 로동자를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쓰고 살도록 해주셨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세심한 사랑을 추켜주시는 김정은원수님. 수수한 로동자의 품에 들리여 아이들을 집에 안으시고 알뜰도 축복해주고 그 수도물이 잘 나오는가 등 가정생활의 구성구석을 친어머니처럼 세심히 돌봐주시는 송고하고 인정은 그 모습은 인정에 목말라 몸부림치던 나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참으로 인민을 우선시하는 령도자의 이민위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꿈같은 일이라는것이 나의 주변에 살던 남조선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끊임없는 현지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학교, 일터와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온갖 은정을 다 배풀어주시고 어린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며 사랑의 기쁨사건도 짝이없고 밝은 매일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밝고 존귀하신 영상에서 나는 제 품이 바로 내가 살

던 조국이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우고 지켜주는 고타운 조국을 동지고 죽음의 시궁창속에서 헤매는 자신이 더욱더 저주스러웠다. 가자. 죽더라도 거이 거리를 조국땅에 가서 묻히자.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는 내 살던 공화국, 어머니당의 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이상 외롭지 않았고 힘이 솟구쳤다. 그후 나는 정보원요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지난 5월 꿈결에도 그림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다. 병든 자식 더 아껴주는 친어머니심정으로 공화국은 죄를 지는 나를 잊지 않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현대적인 병원에서 육체를 좀먹던 질병도 치료해주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도록 세심하게 마련해주었다. 참으로 백년 죽었다 살아도 다 갖지 못할 넓은 인덕과 도량으로 나와 같은 시대의 락오자들도 품어살펴주는 공화국은 진정한 어머니조국이다. 나는 지금도 남조선에서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이듯 《탈복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싶다. 진정한 삶의 요람은 공화국이라고. 황금정 (굴)

최근 남조선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야유하는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다 잡으면 필요했던 사냥개를 잡아 삶아먹는다는 고약한 사냥을 비유하는 말로써 남조선에서는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심술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는 원인은

단평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다 잡으면 필요했던 사냥개를 잡아 삶아먹는다는 고약한 사냥을 비유하는 말로써 남조선에서는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심술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는 원인은

《토사구팽》은 너무도 잘 어울린다.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이 앞으로 또 어떤 《사냥개》(《공약》)를 때려잡을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지만 한가지 명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총선》과 《대선》 때는 물론 《보통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같은 모든 《선거》들에서 보수세력들이 들끓고나오는 《공약》이란 민심을 잡기 위한 한갖 《사냥개》에 불과하다는것뿐이다. 김응철

최근 남조선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야유하는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다 잡으면 필요했던 사냥개를 잡아 삶아먹는다는 고약한 사냥을 비유하는 말로써 남조선에서는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심술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는 원인은

최근 남조선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야유하는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다 잡으면 필요했던 사냥개를 잡아 삶아먹는다는 고약한 사냥을 비유하는 말로써 남조선에서는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심술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는 원인은

최근 남조선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야유하는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다 잡으면 필요했던 사냥개를 잡아 삶아먹는다는 고약한 사냥을 비유하는 말로써 남조선에서는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심술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는 원인은

최근 남조선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야유하는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다 잡으면 필요했던 사냥개를 잡아 삶아먹는다는 고약한 사냥을 비유하는 말로써 남조선에서는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심술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토사구팽》이 유행어로 되는 원인은

### 당국의 독재통치를 끝장낼것이라고 강조

남조선의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판대책위원회》가 9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패당의 야당탄압책동을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야당위원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당국의 《공약》 폐기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한 보수집권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남조선의 로동부는 《해직교사들의 전교조가입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한달후인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범죄로조》가 된다》는 《최후통첩》으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수만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중에서 9명의 해고교원들이 전교조의 성원으로 있다는 리유아닌 리유를 내걸고 교원로조 자체의 법적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있다. 사실 국제적으로 놓고보아도 교원로조에는 교장과 교원뿐 아니라 해고자 등 전직교원, 교직원,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것은 교육에 그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남조선의 현 《정권》은 전교조에 대해 《최후통첩》을 내리기 직전인 9월 20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린 제

7차 국제교원련맹 아시아태평양지역 (EAP) 총회에서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위협을 중단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위협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밖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에서는 존재 그자체를 말살해보려는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처사에 대해 지금 남조선 각계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수 없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전교조에 대한 남조선보수 집권세력들의 탄압책동은 비단 오늘날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일러진바와 같이 남조선최초의 교원로조는 1960년 4월 19일직후 설립된 남조선교원로조총련합회이다. 리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제안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4.19부기직후 《희생된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고, 량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자》는 구호하에 조직된것이 4.19교원로조이다. 4.19교원로조는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교원 60여 명이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

비위원회를 결성한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되어 최대 4만 명(당시 교원 8만명)이 가입한 교원로조로 성장하면서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정적적중립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군부세력들은 4.19로조를 《(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와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현직교사 1500명을 교단에서 쫓아냈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50여명의 4.19교원로조간부들을 감옥에 끌어갔다. 교원로조에 대한 이러한 독재적인 탄압이 지금 현 《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최근에만도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친일, 독재미화로 의곡된 력사교과서를 《리승만 《정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됐을것》이라니 뭐니 하면서 력사교과서의 부당성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교조의 투쟁을 현 《정권》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몰아

가며 탄압하고있다. 심지어 친미,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학자인 류영익을 《홍바른 력사를 정립할 적임자》라고 추켜올리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하려고까지 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보수 집권세력들이 민주주의와 후대들을 위한 참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교조를 어떻게 하나 말살하고 사회를 온통 보수화하여 저들의 집권을 연장해보려는 범법적인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전교조는 《참교육

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탄압하는것은 아이들을 탄압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전교조 탄압은 외곡된 력사교과서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현 《정권》의 의도》이며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굴》으로 권력을 연장하고 현 《정부》는 력사외곡교과서로 력사쿠데타를 일으키고있다》고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이 제아무리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광란하고도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광성

가며 탄압하고있다. 심지어 친미,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학자인 류영익을 《홍바른 력사를 정립할 적임자》라고 추켜올리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하려고까지 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보수 집권세력들이 민주주의와 후대들을 위한 참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교조를 어떻게 하나 말살하고 사회를 온통 보수화하여 저들의 집권을 연장해보려는 범법적인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전교조는 《참교육

가며 탄압하고있다. 심지어 친미,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학자인 류영익을 《홍바른 력사를 정립할 적임자》라고 추켜올리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하려고까지 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보수 집권세력들이 민주주의와 후대들을 위한 참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교조를 어떻게 하나 말살하고 사회를 온통 보수화하여 저들의 집권을 연장해보려는 범법적인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전교조는 《참교육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